

하느님의 강- 고대 근동에서부터 예수 시대, 그 이후, 하느님과 인간 문화의 상호관계.

- 문화의 합류점 -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정복하고 계승할 때, 종교 사상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남
- 이스라엘 에게 문화의 합류점이란 ? 제국에 의해 정복당하는 국가적 재앙. 변화하거나 사멸하거나? - “고통”에 적응한 이스라엘에서 탄생한 새로운 사상과 종교 개념

예수와 복음서의 새 포도주: 왜 갈릴리인가?

- 초기 이스라엘에서 예수까지 - 이스라엘 (북왕국)과 유다 (남왕국)의 분열
 - 북왕국 (이스라엘) 기원전 10 세기-로마시대, 제국들의 길목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 이스라엘 고유 전통과 가나안의 다른 민족 및 제국들의 종교적 전통을 혼합.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일월성신 등)
 - 남왕국 (유다) 는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이방인 혹은 이방인에 동화된 유대인으로 간주.
 - 유다에게 사마리아²와 갈릴리³란? 이방인에 동화된 유대인들의 지역. 기본적으로 무시
- 갈릴리 = 문화들의 주요 합류지, 고대 문화의 종교적 영감들이 만나는 길목
 - 갈릴리 예수와 유대인들 : 북쪽 출신과 남 유다 권력자들 간의 논쟁.
- 복음서의 새 포도주: 예수는 고대 문화의 종교적 영감을 모두 합쳐서 새로운 사상을 발전시킴
 - 하느님과의 참된 관계를 갖는 것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감.
 - (이원론 사상) 모세와 서기관들의 견해와 다름. 예수의 대적은 세상적인 욕망과 악마의 유혹
 - 인간 세상에서의 승리와 구원 (일반적인 메시아 이해)이 아닌 하느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과 영생

하느님의 강과 십자가의 수치

- 하느님의 강에 등장한 예수 이후 종교적 전승 변화. 그리스-로마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 까지
- 예수 이후 하느님의 강에서 그리스도교의 변화 - 주변 환경에 대응, 논쟁, 예수에 대한 이해
- 그리스도교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
 - 십자가형의 정당화⁴ : 예수의 십자가형으로 제자들의 희망이 무너짐 (십자가형은 부끄러운 처형)
 - 십자가사건의 단순 부인 - 가현설 (Docetism),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하느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 그리스 영웅 전승 - 신들의 아들, 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비극적 죽음을 맞음, 부활 후 사람들을 위한 신적 변호인이 됨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모델)
 - 그리스도교: 메시아 전통과 영웅 전승을 혼합. 예수는 두 번 나타날 운명 (자기 백성을 위해 죽는 영웅, 승리의 왕권을 지닌 메시아)
 - 예수의 모습: 고대 이스라엘 전통으로부터 따옴 (이사야 53 장) 고난 받는 종, (다니엘 7 장) 미래의 심판자

진실한 이야기 꾸미기

- 종교적 전통 - 이전의 전통, 외부 환경의 압력, 창시자와 추종자들의 영감이 혼합된 산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진실한 역사”를 토대로 꾸민 “진실한 이야기”)
- 고대 종교 - 신성한 설화. 꾸며진 이야기, 인간의 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움. 어려운 질문들에 답 (고통, 정의와 평등, 삶의 의미..신들의 계획에 의한 것).
- 꾸며진 이야기 (거짓) 속에 진리가 있다?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이치에 맞도록 하기 때문.
- 종교적 전통의 대체 - 하느님의 강에서 급격한 문화의 변화나 과학 철학적 발견으로 인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대체되기도 함.
 - 진보나 변화가 거의 불가능: 새로운 개념이 옛 것으로부터 정당성을 찾아야 함

1 고통의 경험은 변화를 유발한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 배운다. 종교와 문화도 마찬가지
 2 기원전 721 년, 아시리아 왕 사르곤 2 세에 정복
 3 기원전 732 년 사르곤의 티글랏 필레셀 3 세에 정복, 유대인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함 (유대인은 소수민족)..
 4 Trypho: 예수는 십자가형을 당했으므로 메시아는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통적인 기대를 저버렸다고 주장.

- 하느님에 대한 이해의 변화는 종교적 전통을 대체할 수 있지만⁵ 매우 느리게 진행되며 옛 전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음⁶
- 지동설 : 지구 중심의 우주관이 지지했던 종교적 진리를 의심하게 함. 언젠가는 전통을 대체할까?

신앙과 믿음들

- 신앙: 자신의 믿음에 따라 이해되어지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능력. 모든 사회에 존재
- 믿음: 신 혹은 신들에 대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주장. 특수한 문화와 특정의 시간대에 놓인 사람들은 독특한 믿음을 가짐.
- 하느님의 강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문화적 과학적 위기 : 옛 전통과 신앙을 둘러싼 믿음을 손상시킴
 - 믿음은 필연적으로 외부의 자극이 가져다 준 새로운 사상을 소화시키며 진화한다.
 - 믿음은 뒤집어 엮어지지만 신앙은 사라지지 않는다.

초기 그리스도교 믿음의 다양성 : 우리가 돌아가서 만날 유일한 “초대 교회”는 없다.

- 초대교회: 단일한 초기 전통이 없었음. 하느님의 강의 다른 유산을 받아 하느님과 예수에 대한 의견 차이
 - 초기 교회의 양 극단 : 예수는 율법을 완성한 의인 vs 예수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느님
 - 200년 경 그리스도교인들은 대부분 양태론자⁷였고, 신조, 교리, 삼위일체는 전통을 바탕으로 정당화된 개념
- 근현대 : 과학과 철학의 등장으로 조정된 그리스도교, 조직신학의 창출, 신학의 재구성

알 수 없는 하느님

- 고대의 과학적 관찰이 신학에 미친 영향 :
 - 생각의 발전 : 하느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위대한 분
 - 비물질적인 하느님 ; 인간과 같지 않은 절대적 타자, 부정의 용어를 통해서만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
 - 인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 인간의 마음/영혼은 하느님 안에서 출생, 같은 영적인 재료
- 예수가 설명한 인간: 인간은 썩어질 육체에 담긴 영원한 영혼으로 기술
 - 새로운 영감 (new inspiration), 새로운 계시 (new revelation), 하느님의 강의 방향 전환 (new turn)
 - 예수는 하느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 그리스도교: 하느님의 강의 전통을 받아 유대교에 기초, 그리스 사상을 받아들여 둘을 합하고 다른 것을 더함
 - 초대 교회에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함에 따라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하느님의 계시가 인간 안에서 점진적으로 펼쳐 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생에서 성장 단계로 나아감을 뜻함.

21 세기 속을 흐르는 하느님의 강: 하느님의 강은 여전히 진행 중

- 하느님의 실체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단편적인 문화에서 기술하는 이해는 지속적으로 변한다.
- 모든 문화는 각각 자신을 진리의 햇불을 든 자로,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곧 신의 실재라고 믿음
- 하느님의 강은 멈추지 않고, 신에 대한 이해는 지속적으로 대체되었다. 종교사상가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말(생각)을 가지고 옛 사상의 방향을 돌리며 그 틀을 재정비.

마치면서

- 21 세기 과학은 어떠한 계시와 그와 부합하는 종교적 이해를 낳았는가?
-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 우리가 가진 고유의 믿음은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하느님도 도전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보여야 할까?

⁵ 예를 들면 다신론에서 모나드, 삼층천에서 천동설

⁶ 그리스도교에 남아있는 옛 전통: 자신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고 부를 안겨 줄 하느님, 지상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등

⁷ 하느님이 인간 예수가 되었다 하늘로 돌아가 성령이 되었다고 믿음